

동구 · CIS

◆ 헝가리, 정권 교체 후 보다 시장지향적 정책 추진 예상

지난 4월 7일 총선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오르반(Viktor Orbán) 총리가 이끄는 청년민주동맹(Fidesz)과 헝가리민주포럼의 연립여당이 제1야당인 중도좌파의 사회당보다 5~12% 정도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무난히 재집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좌파인 자유민주동맹은 5%에도 못미치는 득표로 원외(院外)로<sup>1)</sup> 밀려나는 반면, 최근 극우파가 득세하고 있는 유럽의 정치경향을 반영하듯 극우 민족주의 정당인 '헝가리인의 정의와 삶'(MIEP)이 선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실제 선거결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사회당이 1차 투표에서 42%를 득표하여, 41%의 득표에 그친 연립여당을 간발의 차이로 따돌리며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자유민주동맹은 6%의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 MIEP는 4%의 득표에 그쳐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4월 21일 실시된 2차 투표에서 최종적으로 사회당이 178석, 자유민주동맹이 19석, 양당 공동 후보가 1석을 각각 획득하여 51%의 의석을 확보한 좌파연합이 집권하게 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투표율이 1~2차 투표에서 투표율이 모두 70%를 웃돌았을 뿐 아니라, 부동산 유권자 상당수가 사회당을 지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親시장적 경제정책 추진 기대

1998년 총선에서 청년민주동맹에게 패배한 이후 4년만에 다시 집권하게 된 사회당은 옛 공산당의 후신이지만, 좌파 성향보다는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총리로 내정된 메드제시(Peter Medgyessy) 사회당 총재는 지난 1980년대와 1996~98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재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헝가리가 순조롭게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하는 데 큰

1) 헝가리 의회법상 정당의 원내(院內) 의석 확보에 필요한 최저득표율은 5%임. 참고로 선거 결과 총 의석 386석 가운데 직접 선출되는 176석의 지역구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한 정당이 나오지 못하거나 투표율이 50%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2차 투표가 실시되며, 나머지 210석은 20개 주의 정당별 비례대표 152석 및 전국구 비례대표 58석으로 구성됨.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관측통들은 메드제시가 빈부 격차의 해소와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좌파적 정책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 유치 등 親시장적 경제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오르반 現총리는 집권 후 헝가리의 경제성장률을 EU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경제발전에 기여했으나, 급격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 심화와 사회안전망 부실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점차 정부의 시장개입 증가, 대대적인 공공투자계획 추진 등 개발독재형의 통치를 편다는 불만을 샀다.

헝가리 경제계도 오르반 정부보다 오히려 중도좌파인 사회당 정부가 더욱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된 4월 8일 부다페스트 증권거래소의 주가지수는 금년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차 투표 결과가 발표된 4월 22일에는 2000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극우파인 MIEP의 원내 진출 실패로 헝가리는 EU 가입 추진을 한층 더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달리 작년 9월 실시되었던 폴란드 총선에서는 EU 가입을 지지하는 중도좌파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EU 가입에 회의적인 극우·극좌파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함으로써, 폴란드 정부는 EU 가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코에서도 제1야당인 시민민주당이 EU 가입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슬로바키아에서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로 EU 가입을 반대하는 메치아르

前총리가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들의 정치상황에 비추어 헝가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였으나, MIEP의 원내진출 실패로 그러한 우려는 불식되었다.

### 새 정부의 어려움도 클 듯

현재 연정 구성에 관한 협의를 진행중인 사회당과 자유민주동맹은 1994~98년 중 연정을 구성한 바 있고, 조속한 EU 가입 및 시장지향적 정책 등 대부분의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연정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년민주동맹을 중심으로 한 중도우파 정당들과 의석수가 근소한 차이에 불과해 집권 이후 구체적 정책 추진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새 정부는 경제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무거운 과제들을 안고 있다.

현재 헝가리의 산업생산은 계속 위축되고 있으며, 수출의존도 매우 높은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헝가리 경제는 최대 수출대상인 EU 경기회복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장률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새 정부가 시장개입과 대대적인 공공투자 등 오르반 총리의 각종 경기부양정책을 완전히 배제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예산관리 문제도 새 정부의 고민거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오르반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을 과도하게 지출한 결과, 금년도 1/4분기의 예산

---

적자 규모는 이미 금년도 전체 예산적자 목표액의 50%에 육박하고 말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선거 공약대로 새 정부가 100일 이내에 세율을 인하하는 동시에 사회보장 혜택의 확충, 공공부문 임금 인상, 낮은 의료서비스 체계의 개편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는 회의적이다. 또한, 재정수지 관리의 불안에 대하여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 경우 폴란드가 지난 수년간 겪었던 것처럼 유로화에 대해 포트폴리오가 계속 강세를 유지함으로써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하락과 경상수지 악화, 경기둔화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새 정부는 정치적 측면에서도 매우 예민한 과제를 안고 있으니, 바로 오르반 정부의 부패청산 문제이다. 오르반 정부는 각

종 부정부패에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특히 국영 헝가리개발은행(MFB)의 공공자금 운용과 관련된 부패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MFB는 국영기업 민영화를 대행하면서 대부분의 매각 건을 은행의 영업비밀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중 상당수 거래에 부정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메드제시 총재는 이 문제에 대해 부패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시사하고 있으나, 중도좌파 정당이 의회에서 근소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새 정부가 오르반 정부의 부패혐의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야당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국정운영이 파행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상당할 것이다.

【吳 昊 駟】